

새정치 광산을 전략공천 후보 ... 새인물 선호·1위는 권은희

광주일보·리서치뷰 광주 광산주민 1000명 여론조사

7·30 보선 ... 정치 신인 선호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은 전략공천을 할 경우 중진인사 보다는 정치신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광산(을)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에는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일 광주 광산(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남성 493명·여성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여론조사 상보 3면〉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9%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ARS(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 RDD(Random Digit Dialing) 유선전화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6.5%가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전략공천할 경우 신진 인사를 공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진 인사 공천은 36.8%에 그쳤다. 기타 답변은 16.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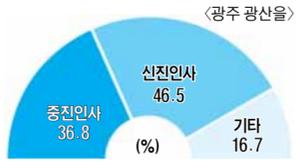
이번 보궐선거에서 신진 인사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9.7%포인트 가량 높았다.

전 연령층에서 모두 정치신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47.2%), 30대(53.9%)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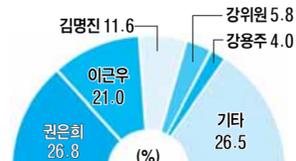
또한 광산(을) 주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후보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뒷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당 안팎에서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

■ 새정치 전략공천시 적합한 인물 (광주 광산(을))



■ 새정치 후보적합도



되고 있는 강용주·김위원·권은희·김명진·박광은·이근우 등 6명을 대상으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권 전 수사과장은 26.8%의 지지를 얻어 21.0%의 지지율을 보인 이근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오차범위 내인 5.8%포인트 차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11.6%), 김위원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인북지관장(5.8%), 강용주 광주지하노선터장(4.0%) 순이었다. 무응답층은 26.5%였다.

권 전 과장은 남성(34.5%)과 40대(28.5%), 30대(28.4%), 19세·20대(26.9%)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 전 부장판사는 여성(24.9%)에서 권 전 과장 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50대(권은희 25.5% vs 이근우 26.0%)와 60대 이상(권은희 19.7% vs 이근우 19.3%) 중장년층에서는 권 전 과장과 이전 부장판사가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김명진 전 행정관은 19세·60대에서 18.8%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광주 광산(을)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제3의 인물 영입' 결정과 함께 '중진 배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천정배 전 장관을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박광은 중앙당 대변인은 수원(을) 선거구에 후보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라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전당 옥상정원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간인 '어린이 문화원'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산책로를 끼고 있는 옥상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전당은 오는 10월 완공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100명 온다

북 "파견"·정부 "수용"... 내년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탄력



2005년 8월 제16회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 모습.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을 볼 수 있게 됐다.

북한은 7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이를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열리는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 "우리는 당면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측 지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조직원 등과 협의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전남도의회 의장에 명현관



전남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명현관(사진·52·해남1) 의원이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윤시석(장성1) 의원과 장일(진도2) 의원이 맡게 됐다. 명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도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재적의원 58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35표를 얻어 23표에 그친 임명규(57·보성2)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입후보해 윤 의원이 1차 투표에서 33표, 장 의원이 2차 투표에서 30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다.

해남 출신인 명 의원은 광주상고, 호남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제9대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운영위원장에 송형근(고흥1) 의원, 기획사회위원장에 강성휘(목포1) 의원, 행정환경위원장에 정영덕(무안2) 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장에 서정환(여수3) 의원 등이 선출됐다. 건설소방위원장은 이용재(광양1) 의원, 농수산위원장 김효남(해남2) 의원, 교육위원장은 김탁(목포4) 의원 등이 각각 맡게 됐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공항 소음 전국 최고 ▶16면



우리 안의 문물... 슬픈 동물원 ▶18면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점주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중형차의 표준 연비 및 용량: C 200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